

지역 소식통

김제시, 착한가게 2호점 현판식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김제시 2호점(대촌주유소) 현판식을 가졌다.

김제시 1호점이 이어 2호점도 교월동에 서 탄생했다.

대촌주유소 대표는 평소 유니세프와 요양원 등에 후원을 해 왔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정기기부를 약속하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태한 공공위원장은 “김제시 착한가게 1, 2호점이 교월동에서 탄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기부를 해주시어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제로인 교월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소방서, 인터넷 원스톱 소방민원센터 운영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예방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 민원센터(<http://www.mps5.go.kr/somin/>)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소방서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원스톱 소방민원센터(소민터)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소방안전관리 및 보조자 선임신고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경찰서, 교통사고예방 교육

부안경찰서는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 1/4분기 균무상황 점검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차량 속도와 사고의 관계, 안전벨트 착용하기, 암보운전 등에 대해 교통사고 실제영상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대중교통을 운전하며 교통 불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갖추어야 할 교통법규 상식과 봉사활동 방향에 대해 실시됐다.

강현신 서장은 회원들이 교통질서 확립 활동 등에 대하여 고마움을 치하하고 특히 “여린이 등하교시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 협조와 교통사고예방 활동에 경찰과 합심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국토부 주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선정

국비 112억 5000만원 확보 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귀향인과 은퇴자 등 정읍지역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선진화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주거와 복지, 건강, 여가와 경제활동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를 재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우선 100억원을 투입해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층에는 복지시설(설립복지관), 3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설립 80호)로 조성해 늦어도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비와는 별도로 입주 후 5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고령자인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콜과 물리치료실, U-헬스케어실, 높낮이조절 세면대, 장애물 없는 건축 등 안전과 편의시설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금은 최근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지역 자체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시는 빠른 시일 내 부지를 선정해

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은 공급을 통해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어르신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 내용과 사업 가능성, 지원운영 가능한 설비복지관 운영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집중방역

이와 관련 보건소는 지난 14일 방역 약품을 음·면·동에 배정했다.

보건소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寨卡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기 방역 소독의 중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기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모기 매개 질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며 모기 기피제와 방충망 그리고 모기장을 사용할 것,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김제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확보 선제 대응

김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김제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비롯한 동향·농정시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촌개발, 식량위에, 축산수산, 유통식품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마을정비 구역 지정, 농지 이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 사업 자금지원 심의 등에 관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2월에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산사업에 대한 신청요령을 공고하여 농업인이 제출한 자율사업 937억,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공공사업 429억등 총 1,366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 받았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절감, 농산물의 품질향상,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사업분야 등 공공사업분야와 지역 공동체소득유지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분야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FTA등에 따른 전면적 시장개방, 경기 불안정, 고령화와 부정청탁금지법 시

행의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고부가 산업화를 위한 농업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농업과 소득안전망 구축 사업 등으로 신청되었다.

김제시는 이를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최종 신청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 확정된 예산은 이후 전라북도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 신청을하게 된다.

올해 농촌개발분과 오형걸위원을 비롯하여 새롭게 위촉된 8명의 위원들은 농업 도시 김제가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의회에 임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 취약지역 집중관리 전수조사

담회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행태 및 서비스 요구도와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정신건강 척도 검사 및 고위험군 개별 상담, 치매선별검사 등의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강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복지 요구 및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해 겸산주공 1단지 아파트에 이어 건강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신풍주공 1단지아파트를 선정 2월 21일 주민 대표와 관련 기관 담당자의 간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 통계연보' 발간

연혁·토지·인구·주택 등 분야별 발전 추이·현황 제공

정읍시는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5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정읍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시는 통계연보를 국가기록원과 국립 종합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통계연보 작성 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정읍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5년 자료와 연계해 정읍시의 연혁과 토지, 인구, 주택, 교육, 교통, 사업체 현황 등 16개 분야 263개 항목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해 각 분야별 발전 추이와 현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교육,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읍 생활권 생태회랑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변산면의 아름다운 해안과 자연환경을 가진 정원문화도시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안읍 생활권 생태회랑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부안군은 지난 2월 말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직으로 부안읍 시내권이 침체 되어가고 있어 부안읍 주변에 10㏊ 규모의 '수생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하여 침체한 부안읍을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도시로 발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고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이옥수기자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면uat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고 품질향상,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사업분야 등 공공사업분야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따라 부안군은 변산면도 국립공원, 체육강등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대

적으로 부안읍 시내권이 침체 되어가고 있어 부안읍 주변에 10㏊ 규모의 '수생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하여 침체한 부안읍을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도시로 발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고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